

광주·전남 大해부

전남편 <제3부> 교육

농산어촌 특성 살린 '강소 학교'에 미래 있다

<작지만 강함>

3 전남교육의 나아갈 길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위원회의 광주 시·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남의 한 학교가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규모·지역 학교지만 알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이 학교는 순천시에 있는 별량초등학교 송산 분교였다. 이 학교는 내년 초 송산 초등학교로 승격될 예정이다.

예초 송산초교였던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분교로 격하된 후 2007년 전교생이 11명까지 줄어 폐교위기에 몰렸으나, 올 7월 현재 전교생이 123명으로 늘어 분교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

송산분교가 다시 활력을 되찾은 계기는 지난 2008년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바탕이 됐다. 교감 포함 교직원 7명은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자율과 협력'으로 학교 운영방향을 정하고 교과 프로그램을 확 바꿨다. 대표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계절학교, 토요프로젝트 학습, 주제탐구 프로젝트 등이다.

계절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예·도예·종이접기 등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07년 11명었던 전교생이 2008년 48명으로 급증, 현재 123명이 됐다. 이 중 무려 110명이 순천읍내에 사는 통학생들이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지만, 알찬 교육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학교들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전남 교육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특장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남 학교 가운데 무려 628개교(초 330·중 195·고 103개교)가 농어촌 학교이며, 6학년 이하 '미니학교'도 무려 355개교(초 178, 중 145, 고 32개교)에 달한다. 전국 도서벽지 학교의 61.8%가 전남에 있다.

그러나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얼마든지 학업과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이를 실증한다.

올해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



'2020 전남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6일 전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 도농간 협력력차 해소, 교육환경개선, 무지개 학교 운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교육청 제공>

알찬 교육프로그램...공교육 비전 만들어야

도·농 격차 해소, 학력신장 프로젝트 절실

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초등학교에서는 합평지역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구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농촌지역 시골학교가 선전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기본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국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 학생 등이 지난 7월 시험을 치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 6학년은 합평지역이 수학과 영어 각 0.3%, 사회 0.5%, 국어, 과학 0.6% 등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광양이 국어와 수학 0.6%, 사회 0.7%, 과학 0.8%, 영어 0.9% 등으로 다음을

이었다. 과목별 최저 지역은 국어는 합평과 광양이 0.6%, 사회는 장흥(0.5%), 수학은 담양·합평(0.3%)이, 과학은 합평(0.65)이 각각 가장 낮았으며 영어는 구례로 단 한명도 없었다. 전 과목에서 학력미달 비율이 0%인 곳은 구례 영어과목이 유일했다.

무안 해적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으로 거듭난 대표적인 학교다. 첨단 e-러닝 교실수업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농산어촌형 우수 학력증진 프로그램,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화된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들의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무지개학교를 지정·운영한다. 전인적 학업성취 달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 만족도 높이기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전남 초·중·고 30곳을 '무지개 학교'(혁신학교)로 선정했다.

무지개 학교에는 1억원 안팎 재정지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교는 ▲다양화·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생 중심 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학부모·지역사회 협력체계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을 무지개 학교 '도입기'로 정하고 성장기(2012년), 발전기(2013~2014년), 확산기(2015) 등 단계를 거쳐 전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다양화·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역·학교·학생 등 삼각축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뼈대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열린 교육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입시 위주, 지식교육 위주의 고질적인 교실 풍경을 토론이 있는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만끽하는 살아 숨 쉬는 교실, 자기 주도적 성취가 보이는 성장이 있는 교실로 바꾸어 내지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교재 특성에 적합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제가 있다. 무지개학교에서는 특히 문제로 시작하는 문제기반학습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육 방법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교육 중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지원체

특별기고

무지개는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무지개는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이 조화를 이뤄 아우라를 만들어 낸다. 이는 개별적 다양성과 전체의 조화를 존중하는 교육의 본질과도 맥이 닿는다. 전남도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무지개 학교'는 '개별적 다양성과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 혁신학교'다.

무지개학교의 운영 목표는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육 공동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학교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활동, 교육 공동체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요소다.

전남도교육청은(교육감 장만재) 무지개학교를 축으로 교육혁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4개의 주춧돌(역선 플랜)을 마련했다.

이정희



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관리 활용 측면에서의 혁신이다.

인적자원 관리 활용에 있어서는 교장 공모제 실시, 교사 초빙제 실시, 필요한 경우 교사 전보 유예 조치 등의 교원 인사 관련 지원과 무지개학교 연구 동아리 운영 지원, 무지개학교 교원연찬 실시, 무지개 학교 연구 컨설팅 팀 조직 운영 등 교육연구 및 실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네 번째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이다. 교육공동체 간 관계를 혁신적으로 정립하는 게 골자다.

다양성과 통합의 모델 '무지개 학교'

첫째는 다양화·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역·학교·학생 등 삼각축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뼈대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열린 교육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입시 위주, 지식교육 위주의 고질적인 교실 풍경을 토론이 있는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만끽하는 살아 숨 쉬는 교실, 자기 주도적 성취가 보이는 성장이 있는 교실로 바꾸어 내지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교재 특성에 적합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제가 있다. 무지개학교에서는 특히 문제로 시작하는 문제기반학습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육 방법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교육 중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지원체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책무성과 긍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뼈대다.

무지개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특색, 스타일, 문화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전남 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남교육청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무지개학교로 우리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적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무지개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즉 전남 도민의 뉘끼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전남 도민의 관심과 격려, 협력적 지원, 배려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전남도 교육청 교육진흥과장>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Hotel (금수장관광호텔) featuring a variety of Korean dishes like seafood, kimchi, and traditional meals. Text includes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and contact info 525-2111.

Advertisement for movieholics featuring cinema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Lists movies like 'The Last Airborne' and 'The Last Airborne' with showtimes and prices.